

수원사랑

2015 가을 Vol. 253



수원사랑

제자 : 근당 양택동 (한국서예박물관장)



표지 화성-성벽2 | 오용길(화가)

| 아름다운 수원화성 성벽의 한 장면을 조형화했다.

수원사랑 통권 제253호

발행일 2015년 8월 15일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장기문 편집주간 정수자

편집위원 조형기, 김준혁, 이형복 편집기자 김민서 발행처 수원문화원

주소 442-08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전화 (031)244-2161~3 팩스 (031)244-2164

홈페이지 www.suwonsarang.com 디자인·인쇄 유승 (031)207-3370

이 책은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차례

- 화보
노을이 드리워진 서북각루 안영자 2
- 권두칼럼
쏘브 퀴 빼(sauve qui peut) 손혁재 4
- 시 속의 수원을 거닐다
가을 저수지에서 다시 낮을 씻듯 정수자 6
- 특집 - 수원의 체육
 - I 한국체조의 산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체조부 오창원 12
 - II 수원농구의 요람 삼일상업고등학교 조성필 16
 - III 야구 불모지에 쓴 신화(神話), 유신고등학교 이준구 20
 - IV 수원의 자랑, 한국 축구의 명문고 수원공업고등학교 신창운 24
- 수원 사람을 찾아서
수원 이용계의 작은 거인, 은봉재 이형복 28
- 수원의 재발견
웅·건릉 제사를 담당한 분봉상시(分奉堂寺) 김준혁 32
- 수원에서의 첫날밤
이끼가 덮여 가는 석축(石築)들처럼 홍순영 36
- 화제로 본 수원
'화성행궁복원' 그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김우영 40
- 수원의 길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든 화성성곽길 김애자 44
- 수원의 추억
1978년, 열두 살 꼬마 소년의 등갓길 이기봉 48
- 기획 - 메르스 투쟁기
오월에서 유월 그리고 칠월까지 이병덕 52
- 기획 - 당수동 시민농장의 도시농부
도시농부, 당수동 다섯 평 텃밭이야기 윤소라 56
- 판, 팬(fan), 편(fun)
수원화성 달빛동행 오수정 60
- 마을만들기
잇고! 묵고! 알리자! 인게 올레?! 김준기 64
- 기획 - 들썩들썩 골목난장
(골목난장),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박종찬 68
- 소식&안내
문화원이 할 일 70





노을이 드리워진 서복각루 | 안영자(사진가)



소브 꾸 빼 (sauve qui peut)

손혁재 | 수원시청연구원장

배가 침몰될 때 선장은 승객과 선원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배와 최후를 함께 맞이한다. 대피하는 승객과 선원들에게 선장이 마지막으로 '소브 꾸 빼'라는 말을 남긴다고 한다. 그 뜻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죽을힘을 다해 살아남아라." 상황은 어렵고, 지도자가 미답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을힘을 다해 살아남아"야 한다. 소브 꾸 빼!

'나라이면서도 나라가 아닌 나라'라는 뜻의 '국비기국(國非其國)'이라는 사자성어. 메르스(MERS)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주지 못함을 뼈저리게 느낀 시민들은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메르스라는 낯선 이름의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메르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자 뒤늦게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내놓는 정책은 모두 뒷북이었고 책임회피에 바빴다.

새로운 감염병에 놀란 시민들에게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친 건 당연하다. 보이지 않기에 공포는 더욱 컸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포를 달래주는 커녕 유언비어 운운하며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했을 뿐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은가? 데자뷰(Déjà Vu)가 아니다. 두 해 전에 나온 영화 「감기」를 본 시민이라면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현실에서 되풀이되는 것에 말문이 막혔으리라.

오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난영화는 재난 관련 책임자의 실수나 당국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비참한 재난의 결과를 과장되게 그린다. 그러나 영화 「감기」 속에 나타난 바이러스 감염을 단순 감기로 착각한 사람들과 감염 확산을 초기에 못 막고 허둥대는 관련 당국의 모습은 결코 과장만은 아니다.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현실과 고스란히 중첩된다.

2002년 중국에서 나타난 사스(SARS)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칭찬을 받은 대한민국이 왜 메르스에 대해서는 맥을 추지 못했을까? 방심했기 때문이다. 사스도 지나 보니 별 거 아니더라는 안이한 인식이 설마 메르스에 풀리겠냐는 안이한 태도로 이어졌다. 방심한 당국은 말로만 들었던 메르스에 대해 약간 심한 감기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하였다. 사태를 감기 수준으로 판단하면 대응도 감기 수준밖에 나올 수 없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보니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했어도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늘 있는 감기인데 수준이 약간 심하다고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를 느낄 수 있겠는가. 당국의 대책은 '그대로 두어라' 수준에 그쳤다. 메르스를 약간 심한 감기 정도로 바라보는 사고는 세월호 사태를 '교통사고'로 보는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다보니 대책도 '가만히 있으라'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책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수원시는 지역 감염 없이 메르스를 조기에 모범적으로 극복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앞장선 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또 확진자 격리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원시는 메르스 상황별 대처과정, 문제점과 취약점, 개선사항 등 모든 것을 기록한 메르스 백서 '일성록'을 발간하고, 보건행정 기능 강화, 안전인프라 구축, 주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등 '수원시 감염성 질환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적 재난을 수원시의 힘만으로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원시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월저수지

김인자

술판 끝나고 심야에 찾아간 일월저수지
어디서 몰려왔는지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물오리 떼들
짜짓기에 와그르르 수면이 휘청거린다
처음 물오리들은 어떻게 이곳으로 오는 길을 알았을까
둑 발치께 엮드려 사는 갈대들은 알 것이다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몰래 훑쳐본 사람이
왜 가슴을 벌렁거리게 했는지
건너 숲에는 짝사랑에 화병 든 사내처럼
가을별에 짝 벌어진 가슴 내보이는 밤송이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뛰어내려 바닥에 몸을 포갠다
빌딩 모서리에 걸려 발목 뺨 바람도 독에 앉아
그들의 신음소리를 훑치고 있다
사랑 앞에선 누구나 몸서리를 치게 되는 것일까?
늦은 밤 저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몸만 부르르 떨었다
상처는 꿈을 위장한 어둠이 어루만져 주겠지만
낮 동안 못다 부른 노래가 있었다면 그 밤
물의 정거장에 쉬었다 가는 바람이 불러주리라
나만 지상에 방 한 칸 무상으로 빌려 사는 줄 알았으나 매일 밤
일월저수지에 복면을 하고 공짜로 세 들어 사는 물오리들도
힘 좋은 사내등살에 곤죽이 되어 아침이면
희멀건 낮빛으로 숲의 골방에 박혀 곤한 잠에 빠질 것이니
아무리 긴 겨울밤도 그들에게겐 짧을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일월저수지 수면에 뜬 창백한 낫달
보아도 못 본 척할 것이다

- 『슬픈 농담』(문학의 전당, 2004)





가을 저수지에서 다시 낮을 씻듯

정수자 | 시인

가을은 바람에서부터 온다. 대기에 짝 차 있던 여름의 물기가 빠지면서 바람에도 삼삼한 기운들이 묻어오며 가을물이 드는 것이다. 팔에 와 닿은 바람의 온도가 기분 좋은 촉감으로 일러주는 가을의 예감 앞에 하늘을 자주 올려다본다. 눈부신 하늘과 한결 투명해진 햇살과 바람을 더없는 축복인 양 받아들인다.

우리네 삶의 고삐를 들썩거리게 하며 마음을 밖으로 자주 불러내는 가을바람. 그렇게 이곳 일상 속의 거리를 걷다 조금 더 멀리 벗어나고 싶은 곳에 저수지들이 있다. 저수지는 호수라는 호명으로 사람들이 더 즐겨 찾는 메혹의 장소다. 물에서 놀다 나온 태생의 기억이 물가를 더 찾게 하는지 모르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늘 붐빈다.

호젓이 물드는 일월의 가을바람

이번에 함께 거닐어볼 시는 저수지의 풍광을 그린 김인자 시인의 「일월저수지」다. 수원의 저수지에는 중농(中農)을 부국의 한 방편으로 추구했던 정조의 꿈이 서려 있다. 축만제(祝萬堤, 서호)며 만석거(萬石渠, 일왕저수지)는 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을 진흥하려는 정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수지들이다. 일월저수지는 그런 역사에서도 조금 떨어진 까닭에 오히려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는 오붓한 휴식공간으로 부각된 셈이다.

김인자 시인은 1989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당선과 『현대시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활동 폭이 넓은 수원의 시인이다. 최근에는 운몽으로 뛰는 산문의 힘을 보여주는 여행 작가로 더 유명하다. 아프리카 오지를 한 달이나 그것도 여자 혼자 트럭으로 누비며 쓴 여행기가 일간지에 한동안 오르내렸던 것이다. 그렇게 수원 바깥 세계를 마음껏 거니는 시인의 수원 시편 중에서 만나는 「일월저수지」는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그 중에도 오붓이 담아낸 가을의 정경이 우리의 발길을 이끈다.

일월저수지는 수원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오랫동안 수원 밖의 외진 곳에서 조용히 저수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니 시를 쓴 당시는 더 한적했을 것이다. 지금도 인근 주민 외에는 놀러오는 사람들이 적어 저수지를 에워싼 주변까지 자연스러운 맛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사람 끌기용 인위적인 조성이 너무 과해 유원지같이 돼버리는 여느 저수지에 비하면 으늑한 자연 속의 수변을 걷는 맛이 펍 좋다.

으늑한 자연 속의 자연스러운 맺음들

시인은 한밤에 찾은 저수지에서 “물오리 떼들”의 짝짓는 장면을 만난다. “와 그르르 수면이 휘청거린다”는 사랑의 강도나 몰입에 숨을 죽인 채 보았나 보다. 그때 스치는 추억의 장면이 있었으니 “숨을 죽이고 문구명으로 몰래 훑쳐본 사랑”의 모습이다. 언젠가 시골 정월 대보름의 추억으로 들려준 장면, 바로 시인이 목격한 어느 집 창호지 너머의 숨 가쁜 실루엣이 거기에 겹쳐진 것이다. 사랑이 그렇게 삶을 이어가듯 중년의 가을이 되어 밤의 저수지에서 마주친 자연의 관능도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가을별에 찍 떨어진 가슴 내보이는 밤송이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뛰어 내려 바닥에 몸을 포”개는 행위 역시 다 그러한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 “늦은 밤 저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몸만 부르르 떨었다”는 문장 너머로 묻어나오는 신음의 이면도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자연의 일이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가을 알밤처럼 지구에 떨어져 나와 이곳 수원 하늘 아래서 복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게 시 속을 거닐다 보니 한밤의 외진 저수지에서 닥뜨린 사랑의 농밀한 장면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생명 살이요 자연의 오랜 기록이 아닌가 싶어진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나는 일월저수지 수면에 뜬 창백한 낮달”도 못 본 척 할 거라는 시인의 말에 끄덕이며 걷는다. 저수지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날 듯 생명들의 밤에 눈을 감는다. 아니 그들의 사랑이 있기에 “물의 정거장에 쉬었다 가는 바람이 불러주리라”는 노래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시와 함께 거니는 동안 벼 익어 가는 논둑의 꼬투리 속에서는 햇콩알들 튀어나가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세상 아랑곳하지 않고 노니는 물오리 떼의 발이며 엉덩이를 씻어주는 수면 위의 잔물결들도 잔잔히 웃으며 가을을 또 지나가리라.

맑은 수면에 가을의 낮을 씻듯

지난 가을에 호젓이 걸으며 취한 일월저수지는 그윽한 운치로 남아 있다. 다시 찾으면 올해는 어떤 표정으로 맞아줄까. 궁금한 것은 다시 가서 온몸으로 느껴보아야 한다. 입을 때마다 다른 맛의 고살을 열어 보이는 시처럼 시간과 마음과 동행에 따라 저수지도 다른 페이지를 열어줄 것이다. 어쩌면 지난해와 다른 물오리 2세들이 와서 신나게 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수지를 건너오는 바람과 수면이 되비추던 눈부신 햇살들-, 그 곁에 끼고 길러 익힌 벼의 씻노란 빛깔과 논두렁콩들 속말도 다시 찬찬 읽어야겠다. 가을 구름이 몸을 행구며 수면을 건너듯 내 안에 쌓인 여름의 때들도 좀 씻어야겠다. 그러면서 내 가을의 민낯은 어떠한지, 스스로에게 더 오래 물어야 하리라.





| 특집 |

수원의 체육



한국체조의 산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체조부

오창원 | 중부일보 문화체육부 부국장

수원농생명과학고(수원농생고)의 체조부는 1961년 탄생했다. 그리고 그 역사만큼 대표 등 수많은 우수 선수들을 배출하며 한국체조를 이끌어 왔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체조로 처음 메달을 획득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박종훈(44회·관동대 교수)이었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유옥렬(51회·경희대 코치)이 바통을 이어 잇달아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연재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에는 리듬체조가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기계체조는 저변 확대가 미흡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원농생고 체조부는 54년간 꾸준히 한국체조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제61회 전국체전은 선수들의 빛나는 성과로 수원농생고 동문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체조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는 등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체조, 제61회 전국체전 첫 종목 우승...경기도 종합우승 견인차

수원농생고는 1980년 제61회 전북 전국체전에서 체조로 처음 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경기도가 2년만에 종합우승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국체전은 서울의 독주가 계속돼 경기도는 제58회 전남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처음한 뒤 2연패를 달성했지만 제60회 충남 전국체전에서는 서울에 뒤져 연승행진이 좌절됐다.

하지만 27개 종목의 경기가 열린 이듬해 전북 전국체전서 경기도는 종합점수 3만1천474점을 획득, 서울(3만1천257점)에 217점 차의 근소한 승리를 거두며 최강자의 위치를 다시 찾았다. 당시 체조는 2천355점을 기록하며 서울(1천512점)에 843점 차로 대승을 거두고 처음으로 종목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 같은 활약에는 국가대표인 김용한(2학년)이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용한은 월등한 기량을 앞세워 마루운동·도마·평행봉·안마·개인종합에서 금메달 5개와 링·철봉·단체종합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전 종목에 걸쳐 8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기염을 토하며 혼자 800여 점을 획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수원농생고는 김용한 외에 김진태(2학년)가 개인종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개인전에서 1·3·5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선수들간 기량차가 심해 단체종합에서 서울체고에 뒤져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기도는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선수단을 환영했다. 경부고속도로 평택인터체인지를 빠져 나와 김용한을 필두로 오픈카와 버스에 나눠타고 카퍼레이드를 펼친 뒤 인천 답동광장에서 환영식이 개최됐다. 당시에는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되지 않아 그곳에서 했다. 수원농생고에서도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돌아온 선수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음은 물론이다.

고교 1학년 때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대비한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2위에 오르며 일찌감치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김용한은 모스크바 올림픽 예선을 겸한 제20회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본선행 티켓을 따는데 일조했고, 그해 전국체전에서 선배들을 제치고 개인종합에서도 당연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던가.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고교 수준을 넘어 국내 최고로 성장하던 김용한은 3학년 때 훈련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기량을 만개하지 못했다. 당시 수원농생고 체조 선수 출신으로 모교에서 감독을 맡은 심인섭(27회, 67세) 교사는 “용한이는 특출난 기량을 가진 최고의 선수였다.”고 회상하며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진 체육관에서 훈련을 했다면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1980년 전국체전에서 경기도의 종합 우승과 체조 종목 우승에 크게 기여한 수원농생고 선수들과 심인섭 교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김용한)

열악한 환경을 강훈련으로 극복

수원농생고는 1982년까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도 없이 체조부를 육성했다. 1951년 학제개편으로 수원북중이 분리됐으면서도 한울타리로 형성돼 시설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월이 흐르면서도 수원북중 체육관을 주로 사용하고 수원여고 체육관 등을 전전하며 훈련을 실시했다.

코치도 없이 감독교사의 지도 아래 선배들이 돌봐주는 형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운동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따라서 선수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스파르타식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뤄졌고, 선수들 또한 그런 방식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숙소도 없어 인천남중 출신의 김용한과 김진태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운동을 했다.

전북 전국체전을 앞두고는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수원여고 체조부와 합동훈련을 하며 각오를 다졌다. 수원여고의 체육관도 농구부와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체조부 김경희 감독교사가 심인섭 수원농생고 감독의 부인이었기에 가능했다. 수원여고에도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 우수한 선수들이 많아 합동훈련은 단점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결국 전국체전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



1980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용한의 모습

김용한 5관왕, 광고체육관 건립으로 동문들 결집

김용한의 5관왕과 체조부의 선전은 동문들의 힘으로 광고체육관을 건립하게 만들었다. 훈련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체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총동문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총동문회는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교실 하나반짜리만 한 비닐하우스 훈련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선수들의 건의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총동문회는 고 심재덕(17회·전 수원시장) 동문을 광고체육관 건립추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일만 동문의 성금으로 건립하는 광고체육관'을 위해 동문들은 '담배 낮춰 피워 88올림픽에 기여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동참했고 재학생들은 '버스 안 타고 걸어다니기', '용돈 아껴쓰기' 등을 통해 성금을 내는 등 푹푹 뭉쳤다. 성금 모금이 담보상태에 있을 때 고 최종현(10회) 선경그룹 회장이 체육관을 건립해주겠다고 했지만 심재덕 위원장이 전 동문의 힘으로 건립해야 한다며 고사해 2천만원의 성금만 냈다는 일화도 전해오고 있다.

이런 동문들의 의지로 2억5천여 만원을 들여 1천450㎡(440여 평) 규모로 1982년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광고체육관은 체조부는 물론 동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줬고 자랑거리가 됐다.



동문들의 힘으로 세운 수원농생고 광고체육관



광고체육관 기공식에 참석한 염보현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수원농생고 동문들의 모습

수원 농구의 요람 삼일상업고등학교

조성필 | 경기일보 기자

일본 유명 만화가 이노우에 타케히코[井上雄彦]가 그린 농구만화 『슬램덩크』를 보면 해남대 부속고교라는 팀이 등장한다. 전국에서도 유명한 강호로 17년 연속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했다고 그려진다. 작품 내에서 ‘가나가와의 왕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현(縣, 우리나라의 도 개념)의 대표하는 팀으로 묘사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각 도를 대표하는 농구팀이 있다. 최근 농구 유망주들이 서울 소재 고교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됐다고는 하지만 전라북도의 전주고등학교, 부산 동아고등학교, 충청남도 대전고등학교 등은 지역의 농구 명문 고교다. 경기도에도 이에 해당하는 팀이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삼일상업고등학교다.

1965년 창단된 삼일상고 농구부는 수원 농구의 요람이라 불린다.

수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농구팀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왔다. 김성철(현 경희대 코치), 강혁(현 삼일상고 코치), 양희종(안양 KGC 인삼공사), 하승진(전주 KCC 이지스), 이대성(상무), 김민구(전주 KCC 이지스) 등이 대표 동문들이다. 각종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고교농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38연승의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일상고는 이런 ‘농구 명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 삼일상고 코치 강혁의 프로농구 선수시절 모습(KBL 제공)

첫 발을 내딛다

1960·70년대는 서울권 소재 고교들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용산고, 경북고, 휘문고, 신일고 등이 고교농구계 강호로 군림했다. 인천 송도고만이 이들과 겨룰 만 했을 뿐 부산 동아고, 대구농고, 군산고 등 지방팀들은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일찌감치 짐을 싸곤 했다. 삼일상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쌍용기·전국체전 등에서 서울팀과 만나면 번번이 고배를 삼키곤 했다.

삼일상고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 국내 최장신 하동기(205cm)씨가 입학하면서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2m가 넘는 농구선수는 고교팀뿐 아니라 실업팀을 통틀어 하씨가 유일했다. 당연히 고교무대에서 그를 막을 상대는 없었다. 하씨는 높이를 활용한 골밑 공격으로 매 경기 20득점 이상을 책임지곤 했다. 이에 따라 삼일상고의 성적도 수직상승했다. 전국 규모 대회에서 4강 안에 든 것도 이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끝내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삼일상고는 1990년대 초반 또 한 번의 도약기를 맞이한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활약한 뒤 모교로 돌아와 지도자생활을 시작한 이윤환 감독이 벤치를 맡으면서였다. 이 감독은 실업무대에서 익힌 속공 위주의 팀플레이를 녹여내 삼일상고를 단숨에 전국구 강호로 성장시켰다. 훗날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성철, 강혁 등이 당시 삼일상고 주축 선수들이었다. 그럼에도 우승은 끝내 차지하지 못했다. 우승 문턱 앞에서 현주엽(현 해설위원)이 이끄는 휘문고, 은희석(연세대 감독)의 경북고, 이규섭(삼성 코치)의 대경상고, 조상현(고양 오리온스 코치)과 황성인(양정고 코치)이 버티는 대전고 등에 번번이 가로 막혔다.



현 경희대 코치 김성철의 프로농구 선수시절(KBL 제공)

황금세대의 출현

창단 이래 현재까지 삼일상고의 황금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이중원(은퇴), 양희종(안양 KGC 인삼공사), 박구영(울산 모비스), 정의한(전주 KCC 이지스), 하승진(전주 KCC 이지스), 정승원(삼일상고 코치) 등이 당시 선수들이다. ‘골든 제너레이션’이라 불리는 이들은 2001년 4월 26일 삼일상고 농구 역사에 큰 획을 긋는다.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제26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중고농구대회 마지막 날 남고부 결승이 열렸다. 삼일상고는 이 자리에서 전통의 강호 경북고를 79-66으로 누르고 창단 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맛본다. 전반까지 38-38로 맞섰으나, 후반 양희종과 이중원이 득점에 앞장서면서 전원석(은퇴)과 함지훈(울산 모비스)이 분전한 경북고를 13점 차로 따돌린 것. 당시 우승 멤버였던 정의한은 “첫 우승이었던 만큼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이 우승을 시작으로 삼일상고의 전성시대가 열었다. 제26회 협회장기에 이어 그해 6월 개막한 대통령기에서 우승하면서 시즌 2관왕에 올랐고, 하승진이 주축 멤버로



전주 KCC 이지스의 하승진 선수(KBL 제공)



안양 KGC 인삼공사의 양희종 선수(KBL 제공)

성장한 2002년에는 시즌 4관왕을 차지했다. 삼일상고는 하승진이 졸업반이었던 2003년까지 여러 차례 패권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고교농구의 '왕자'로 떠올랐다.

역사는 현재진행형

황금세대가 모두 졸업한 이후 삼일상고는 잠시 정체기를 겪는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강호임에는 분명했으나,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2006년 7월 경남 김해체육관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에서 박유민(고양 오리온스), 김다운(은퇴)을 앞세워 우승기를 휘날리긴 했지만, 황금세대가 이끌던 삼일상고 시절의 강력함은 없었다.

유병훈, 이대성, 김민구 등이 활약하던 2007년~2009년도 제2의 전성기로 평가받지만,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압도적인 전력은 아니었다. 2007년 쌍용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와 2008년 연맹회장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 2009년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으나, 당시 박재현(서울 삼성), 장재석(고양 오리온스),

전준범(울산 모비스)이 버틴 경북고가 오히려 전력 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동안 우승권에서 멀어졌던 삼일상고는 올해 2월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KBL총재배 춘계전국남자중고농구대회에서 패권을 안으면서 오랜 공백기를 깼다. 2014년 코치로 부임한 강혁의 공이 컸다. 선수 시절 '2-2 마스터'라 불리던 강 코치는 2-2 플레이를 비롯해 여러 개인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했고, 그 결과 부임 1년 만에 삼일상고를 정상으로 이끌었다. 이후 삼일상고는 매 대회 결승에 이름을 올리며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 상무 농구단의 이대성 선수(KBL 제공)

야구 불모지에 쓴 신화(神話), 유신고등학교

이준구 | 경기신문 대기자

창단 5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

1989년 10월 1일은 유신고교가 경기도 야구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작성한 날이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팀 창단 5년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그것도 고교야구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 9회말 역전승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군산상고를 보란 듯이 9회말 황선문의 역전타로 전통의 야구 명문 대전고교를 6-5로 물리쳐 처음으로 우승기를 품에 안은 것이다. 수원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체육대회에 서였다. 현재 kt위즈파크 자리인 수원종합운동장 야구장은 떠날 듯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2천여 명의 유신고 전교생과 동문들은 첫 우승의 순간 뿔 듯이 기뻐했고, 선수들은 선우 종 감독을 행가래쳤다.

대통령기·청룡기·봉황대기·황금사자기 등 4대 고교 야구대회 우승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1986년 제67회 서울체전 이후 3년 만에 종합우승을 탈환하는데 기여했고, 야구종목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기에 값진 것이었다. 효자



1989년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유신고 야구부

노릇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유신고는 창단 3년째인 1986년 제8회 대붕기 3위, 1987년 제41회 황금사자기 3위에 이어 이듬해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는 준우승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승 상대는 그해 봉황대기 우승의 동산고를 물리쳐 파란을 일으킨 대전고.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1회와 2회 연속으로 1점씩을 빼앗겨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4회에 윤주영과 김민태의 안타로 2점을 만회해 동점을 이뤄냈다. 난타전 끝에 스코어는 3-3, 5-5로 팽팽한 접전을 보여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그러나 이날의 루키 황선문은 한 방의 결승타를 때려 6-5의 역전승을 거둠으로써 3루 측에서 응원 하던 유신고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황선문 역시 선우 종 감독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실로 5년 만에 맞보는 짜릿한 우승의 순간이었다.

이성렬 감독의 공부하며 인성 기르는 야구

31년 전 유신고 야구부 창단과 26년 전 전국체전 우승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야구의 불모지인 수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것이었다. 다른 운동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야구는 학교에서 팀을 선뜻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유신고 설립자인 고 박창원 이사장의 야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열매를 맺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1년 동안이나 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선수 수급은 또 어떤가. 신곡초등학교와 수원북중학교 달랑 하나씩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다. 선우 종 감독 이후 1990~1995년 8월까지 5년 동안 최한익, 문영욱 감독이 재임했지만 세 차례 전국대회 4강에 든 성적이 고작이었다.

1995년 9월 현재의 이성렬 감독이 부임했다. 배문고와 공군야구단(지금의 상무)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이 감독 역시 선수 수급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지의 중학교를 돌아다니며 재능 있는 선수



1984년 4월 14일 창단한 유신고 야구부

들을 발굴해오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 20여 명 선수 중 타지에서 온 선수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유신고 야구부가 '외인부대'로 통하는 것이 이를 방증해준다. 게다가 이 감독은 부임하면서부터 운동선수는 수업을 안 듣는다는 상식을 깨고 '공부하는 야구선수, 인성이 바른 야구선수' 육성을 목표로 했기에 이런 선수를 구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이 감독의 이 같은 지도 방침은 나중에 고교야구의 주말리그가 시행되는 단초가 됐다.

오히려 경기력 향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청룡기 대통령배 대회에서 4강으로 이끌고 급기야는 2003년 제1회 미추홀기 대회의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1989년 전국체전 첫 우승에 이은 15년 만의 우승이었다. 이어 2005년에는 고교야구 4대 메이저대회의 하나인 봉황대기를 품에 안았다. 이 감독이 팀을 맡은 지 꼭 10년 만에 이룬 꿈이었다. 이로써 공부하는 선수, 인성 바른 선수 육성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었고, 아마추어 야구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됐다. 이 감독이 환갑의 나이가 되기까지 20년 이상 유신고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3년 시즌을 마감하는 제1회 미추홀기 원년 대회 우승의 의미는 남달랐다. 1, 2학년들을 주축으로 이뤄낸 성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오른손 투수 최정(2학년)은 고교 특급 선수로 키 1m82cm, 몸무게 84kg의 체구에서 나오는 직구 스피드는 시속 140km대 후반을 넘나들어 상대 타자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타격 능력도 뛰어나 그 해 시즌 전국대회에서 6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2003년 제1회 미추홀기 대회에서 우승한 유신고

부산 병동의 불꽃 투혼으로 초록 봉황 품에 안아

여세를 몰아 2년 뒤인 2005년에는 고교야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봉황대기 대회에서 대망의 초록색 봉황을 품으며 정상에 또다시 우뚝 섰다. 명실공히 야구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는 유신고 최고의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광복 60주년을 하루 앞둔 8월 14일이었다. 동대문구장은 유신고 응원단의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전통의 야구명문 광주일고를 4-1로 무릎을 꿇게 했다. 1-0으로 뒤진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은 이 날 유신고 선수들의 '불꽃 투혼'은 지금까지 야구계에 회자되고 있다.

신명철, 윤태식 등 중심타자들은 매 경기 진통제를 맞고 출전을 강행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4번 타자 배경수도 허리 통증이 도져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감독에게 50세 생일 선물로 초록색 봉황기를 선사했다. 부상병들이 일궈낸 값진 우승이어서 이 감독도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

야구의 불모지에서 개척정신으로 31년간 독보적 존재로 굳건한 자리를 지킨 유신고. 현재 유신 출신 현역 프로야구선수만 30명에 이른다. 스타 공급처로 불리는 군산상고 전주고, 광주일고, 부산상고, 신일고 못지않다. SK의 4번타자 최정, 넥센의 4번 타자 유한준, 두산의 재간동이 정수빈, 삼성의 배영섭, 롯데 불펜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장호가 프로야구에서 유신을 빛내고 있는 선수들이다.

지난해 봉황대기를 9년 만에 되찾으려다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다. 평소에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하던 이성렬 감독은 눈물을 글썽이는 선수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같은 이 감독과 선수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원의 야구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유신고의 돌풍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는다. 특히 수원을 연고지로 한 kt wiz의 창단은 이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다.



야구인의 밤 - OB 대 YB 경기

수원의 자랑, 한국 축구의 명문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신창윤 | 경인일보 체육팀 팀장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박지성

수원공업고등학교(교장 이영운) 축구부는 한국의 '축구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해낸 '축구 명문교'다. 지난 1981년 창단된 수원공고 축구부는 지난 34년간 수많은 스타급 선수들을 배출해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1호' 박지성(은퇴)을 비롯해 김재성(서울 이랜드), 이현승(대전 시티즌), 김선민(FC안양) 등이 이 곳 출신 선수들이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박지성은 세계 최고 축구구단으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아시아인 최초로 입단하는 등 수원공고가 길러낸 수원의 아들이다. 박지성은 이학종 수원공고 축구부 감독의 조련을 받아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체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함을 겸비, 거스 히딩크 2002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눈에 띄어 마침내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됐다.

박지성은 2002월드컵을 4강으로 이끈 뒤 히딩크 감독을 따라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에 입단해 좋은 성적을 거뒀고, 유럽무대 진출 3년 만인 2005년 6월 축구 본고장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이른바 꿈의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로, 주장으로 7년여 간 경기장을 뛰어 다닌 그는 총 205경기에 출전해 통산 27골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지략가이면서 기본기 내세운 이학종 감독의 축구철학

이렇듯 수원공고 축구부는 한국 축구의 사관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원공고가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95년 9월부터 축구부 사령탑에 오른 이학종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19세 청소년축구 대표를 거쳐 1985년과 1986년에는 한일은행 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면서 슈퍼

프로리그 골든볼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1987년~1990년 월드컵축구 국가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왼발의 달인'으로 불리며 정교한 킱을 자랑했다. 1992년~1995년 일본 실업축구(JFL) 1부리그에서도 활약한 이 감독은 1995년 수원공고 축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뒤 2001년~2002년 청소년국가대표 코치를 맡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이 감독의 지략은 어린 선수들에게 큰 자양분이 됐다. 기본기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축구 철학을 가진 이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조련한 지 1년 8개월 만인 1997년 3월 제33회 춘계전국고교축구연맹전에서 3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올렸다. 이 감독은 철저한 데이터 축구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기용했으며, 전·후반 90분 동안 뛰어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키우는 등 유망주들을 착실히 길러냈다.

이후 경기도대회를 휩쓸며 최강팀으로 군림한 수원공고는 1998년 10월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홈팀 제주선발을 꺾고 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등 전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수원공고의 우승컵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0년 10월 제81회 전국체육대회 결승에서 마산공고를 3-1로 누르고 2번째 전국체육대회 우승컵을 가져온 수원공고는 한·일 월드컵이 치러지기 전 열린 제46회 청룡기 전국중고축구대회에서 부산정보고를 승부차기 끝에 7-6으로 꺾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그 뒤 월드컵이 끝난 9월 제57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강릉농공고를 승부차기 끝에 8-7로 제압하는 등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



1998년 10월 제79회 전국체전에서 사상 첫 우승컵을 차지한 수원공고

가장 권위 있는 대통령금배 2개의 우승컵을 거머쥐다

수원공고는 한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통령금배도 손에 넣었다. 2005년 6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에서 중동고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누르고 사상 첫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어 수원공고는 6년 뒤인 2011년 8월 제44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보인고를 3-2로 누르고 또다시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2005년 제38회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에서 승리한 후 환호하는 수원공고 선수들

이후 정부는 '공부하는 운동 선수 육성 방침'을 내세웠고, 대한축구협회는 주말리그를 도입했다. 주말리그는 권역별로 나눠 주말에 경기를 치른 뒤 연말에 왕중왕전을 통해 최고의 팀을 가린다. 물론 주말리그에서도 수원공고의 눈부신 성과는 이어졌다.

2014년 8월에 개최된 추계한국 고등학교축구연맹전(저학년) 결승에서 연남고와 승부차기 끝에 7-6 승리를 거둔 수원공고는 그해 10월 2014 전국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에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포항스틸러스 18세 이하팀인 포항제철고를 접전 끝에 2-1로 누르고 첫 통합우승의 주인공이



2014 전국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 후 이학중 감독이 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됐다. 특히 수원공고는 8강과 4강전에서 각각 전남광양제철고(K리그 전남 드래곤즈 U-18), 울산현대고(K리그 울산 현대 U-18) 등 프로구단 산하 유스팀들을 잇따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는 등 명문팀임을 다시 한 번 전국에 과시했다.

제2의 도약 꿈꾸는 수원공고 축구부

이제 수원공고는 제2의 도약을 꿈꾼다. '제2의 박지성' 같은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뽑힌 수원공고는 최고의 경기력으로 우승컵을 또 한 번 가져올 계획이다.

이학중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우선이다."라면서 "체력이 바탕이 된다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기를 연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원공고 축구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는 게 내가 할 일이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세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4강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수한 선수들을 잘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의 자랑인 수원공고 축구부.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박지성을 배출한 수원공고. 수원공고 축구부가 있는 한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다.



2014 전국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수원공고

수원 이용계의 작은 거인, 은봉재

이형복 |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차장

수원역 인근의 매산시장. 분주한 발걸음의 행인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시장은 이처럼 늘 활기차다. 나름 목적을 갖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생기발랄한 걸음에 절로 리듬을 맞춘다. 이곳에 '남성컷'이란 간판이 눈에 띈다. 컷트 4천원. 저렴한 가격이다. 일반 남성 이발의 경우 1만원을 넘나드는 가격에 비하면 말이다.

예전에는 이발소가 동네 곳곳에 자리했다. 어느 사인이 미용실로 남성들의 발길이 옮겨가면서 이발소 간판 찾기가 쉽지 않다. 이전 이발소의 풍경은 그랬다. 둔탁한 의자에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넘긴 아저씨와 늘 뜨거운 물이 준비돼 있던 곳. 겨울이면 연탄 난로에 창문이 김에 서려 흐릿흐릿했던 곳. 남성들의 동네 사랑방 역할은 두말할 것 없다. 이제는 이발소의 명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발 중인 은봉재 원장의 모습

매산시장에서 이발소 아카데미 운영

매산시장 입구에서 6년째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은봉재(72) 원장. 그냥 이발소가 아니라 교육생을 양성하는 이발아카데미를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이발에 대한 기초 교육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4~5명의 교육생이 모두 여성이란 것. 이발소에서 왜 여성들이 수업을 받고 있을까.

“교육생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배우려는 남성은 간혹 있지만 드물어요. 여기서 이·미용 기술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죠.”

화성시 능리(현재 동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이후 수원 탑동으로 이사온 은 원장. 매산시장으로 가게를 옮기기 전 수원역 인근에서 3배 규모의 이발소를 운영했다. 그 전에는 동수원사거리에서 7년간 직업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IMF를 전후해서 이발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엄청 났어요. 6개월 과정이었는데, 많을 때는 800명이 넘었죠. 그 동안 줄잡아 2천 명 정도 수료했던 것 같아요”

50년이 훌쩍 넘는 이발 경력의 은 원장은 인터뷰 내내 차분하면서 조리 있게 자신의 인생을 풀어냈다. 먹고살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었지만, 나름대로의 보람과 자신의 업(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이 느껴졌다.

“내가 이발을 배울 때만 해도 경력이 7~10년은 돼야 가위를 잡을 수 있었죠. 견습생은 그 일만 해야 했거든요. 물을 기르는 사람은 물만 길렀고, 머리 감는 사람은 그것만 했죠. 이발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먼발치서 힘끔 거리며 익혔지, 감히 가르쳐 달라는 말도 못했죠.”

그래도 은 원장은 운이 좋았다. 주인아저씨의 잦은 외출로 그가 가위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시절 남의 집(이발소) 일을 하면서도 호감 있게 일한 결과, 이직이 잦은 이발업계에서 여러 차례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며 묵묵히 일했다.



은봉재 이발아카데미 원장

이용사회 간부로 이발업의 중흥을 꾀하다

그러나 내면에는 내가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 은 원장은 이용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이용사회 간부로 활동했다. 중앙회 부회장과 경기도와 수원이용사회 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업이 밀리는 것을 목도하며 은 원장은 발품을 팔며 이용업의 중흥을 모색했다. 하지만 시대적 환경과 이용계의 힘겨루기에 지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를 앞두고 수원직업전문학교 교장을 계기로 교육 일선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IMF는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였죠. 이때 이발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무언가 삶의 끈을 잡으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구요. 흔히 이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사회적으로 낮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IMF를 통해 그런 격차가 조금은 허물어졌다고 생각해요.”

은 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능직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이뤄졌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국민으로부터 출발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사회의 변혁은 필수이고 이를 통한 직업의 보편화와 다양성, 상대적 존중감이 필요한 것이다.

웅변하고 시 쓰는 이발사

이발소 곳곳에는 그의 상장과 임명장이 테두리처럼 걸려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웅변대회 상장이다. 남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시작한 웅변. 처음에는 자녀들의 발표력을 키워주기 위해 찾았던 웅변학원이었는데, 자녀보다 자신이 5년간 전국대회에 출전할 만큼 실력을 쌓았다.

여기다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기 위해 당수에도 입문했다. 그의 말을 빌면, 성격적으로 화내는 일도 없고 참을 줄도 아는데, 키가 작다고 깔보는 것은 못 참았다.

“30대 후반에 웅변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부끄럼 없이 강단에 섰고 전국을 다니면서 굶직한 상도 탔어요. 당수는 초단을 땀어요. 요즘 운동은 너무 요령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운동은 나에 대한 책임감이고 무지한 가운데 따뜻한 무언가가 나오는데 말이죠.”

최근 그의 관심사는 ‘현대시조’이다. 지난 2011년 등단했고, 그 해 120편의 시를 담은 『하루길 나무』를 출간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강했는데, 시조는 짧으면서도 절제되고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지부장을 내려놓은 후 뒤를 돌아보니, 그에게 시가 다가왔다. 수소문 끝에 정수자 선생을 알게 됐고, 그를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용인 출신의 좋은 시조 선생님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찾는 데 한계가 있더군요.”

은 원장은 우연히 최동호 교수가 운영하는 <수원 남창동 최동호 시창작 교실>을 알게 됐다. 그곳에서 정수자 선생이 교수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이미 주변 지인은 은 원장이 정 선생을 찾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날 운명적으로 정 선생과 조우하는 행운을 얻었다.

새로운 일은 늘 설렌다. 나이가 많건 적건, 시작은 도전이란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발사가 제 옷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50년 넘게 가위를 잡고 있는 뚝심과 웅변과 운동을 병행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은봉재 원장의 도전은 끝이 없기에 더 가치가 있다. 은 원장은 그동안 터득한 자신의 노하우를 대학 강단에서 전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강의비를 받기보다는 기술 강의를 통해 이용업계의 든든한 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하나인 것이다.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은봉재 원장의 시가 이발소 한 편에 걸려 있다

융·건릉 제사를 담당한 분봉상시(分奉堂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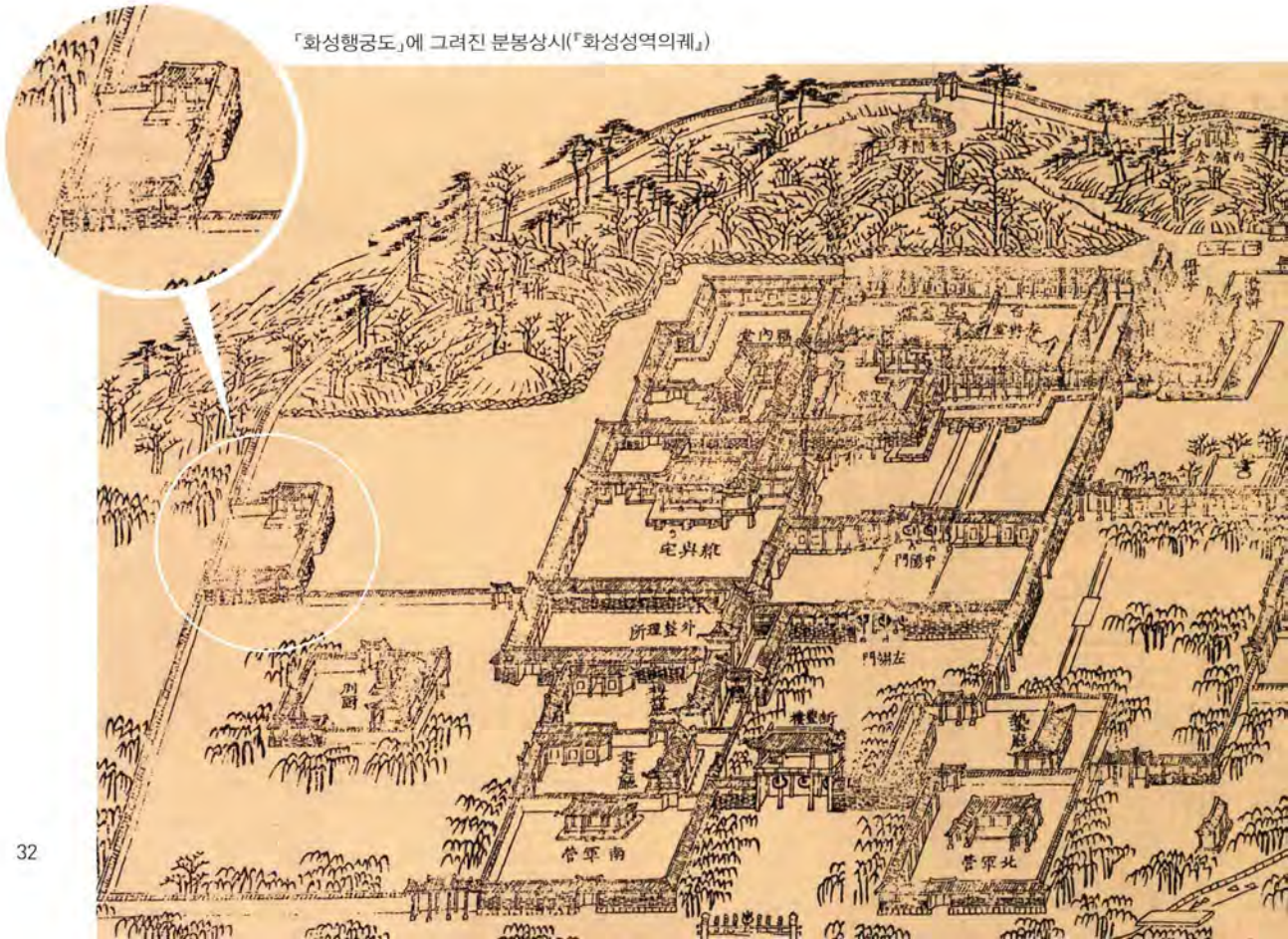
김준혁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1801년 1월 7일 수원유수 이만수가 조정에 들어가 국왕 순조에게 건의했다.

“전하! 선대왕인 정조가 살아있을 때 화성행궁에 오셔서 유수에게 분봉상시(分奉堂寺)를 설치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준비를 하다가 선대왕께서 돌아가셔서 설치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만수의 건의를 들은 순조는 즉시 화성유수부에 분봉상시를 설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수원의 화성행궁에 설치된 분봉상시란 어떤 기관이기에 정조가 특명을 내렸고 정조가 죽은 뒤에도 다시 신하들이 설치하고자 건의한 것인가?

「화성행궁도」에 그려진 분봉상시(『화성성역의궤』)



제사를 주관하고 시호를 정하는 관청, 봉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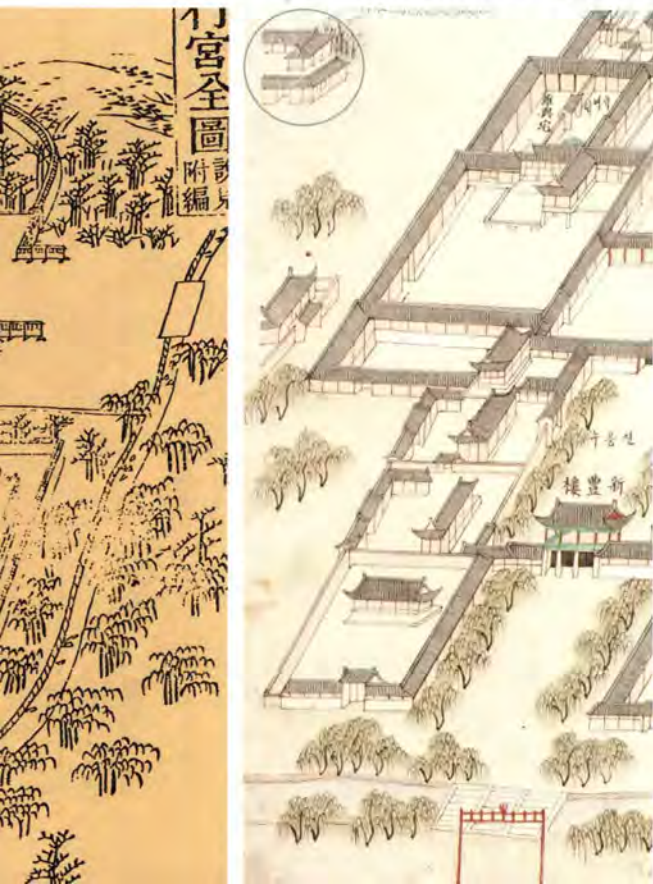
봉상시란 기구는 조선시대 국가 의례를 주관하는 관청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사에 관한 부분을 주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왕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를 종묘사직에 지내는 종묘대제와 사직대제를 말한다. 역대 국왕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의 제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지내는 사직대제 역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이 두 제사를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거의 하루 종일 이를 치르는 동안 국왕을 비롯한 모든 관료들이 추위나 더위를 가리지 않고 제사에 임한다.



「화성행궁도」에 나타난 봉상시
(「원행정리의계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당시 여러 기록들을 보면 너무 장시간 치르는 제사에 쓰러지는 관원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국왕 역시 체력이 달려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는 온 정성을 다해 치른다. 이처럼 중요한 제사를 주관하는 곳이 봉상시이다.

봉상시에서 단지 종묘사직만의 제사가 아닌 조선시대 모든 왕릉에서 치러지는 제사 역시 주관한다. 왕릉만이 아닌 왕실의 모든 사당과 오악(五岳)과 강(江)에서 지내는 제사도 주관한다. 이에 더하여 봉상시는 돌아가신 국왕 및 세자 등에게 시호(諡號)를 정하는 일을 하는 기구이다. 즉, 정조(正朝)는 돌아가시고 나서 공식적으로 정조문성무열장효왕(正祖文成武烈長孝王)이란 묘호(廟號)와 시호를 받았다. 정조는 묘호이고 문성무열장효왕은 시호이다.



즉, 높은 학문과 탁월한 무예를 갖고 있으며 할아버지 영조와 아버지 사도세자 그리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극진한 효도를 다했다는 것이 바로 정조라는 것이다. 정조의 생애와 특징을 몇 안 되는 단어로 명확히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돌아가신 분의 위업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시호를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봉상시의 관원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화성유수부에 봉상시 분소 설치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긴 이후 매년 사도세자의 현릉원을 참배했다. 당시 현릉원 참배시에 자신의 행차인 거동을 주관하는 부서로 한양 도성에 있는 정리소(整理所)에서 담당하게 하고, 제사 지내는 주관은 봉상시에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더 제대로 된 제사를 하고 싶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수(祭需)를 더욱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올리고자 했던 것이다. 서울 도성에 있는 봉상시에서 주관하여 서울의 물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신선이 떨어질 수 있고 제수용품이 상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다양한 기물도 서울에서부터 가져오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조는 아예 봉상시의 분소를 화성유수부에 따로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 분봉상시는 여러 차례 설치됐지만 살아있는 국왕이 세자로서 국왕이 되지 못 하고 죽은 아버지를 위해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조는 태조의 두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齊陵)과 조선시대 두 번째 국왕인 정종(定宗)의 후릉(厚陵)에 분봉상시를 설치하고 화성유수부에 분봉상시를 설치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정조의 하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명하였기 때문에 당시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분봉상시가 화성전도 및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정조시대 이미 분봉상시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순조 초반에 설치된 것이다.

이만수의 건의에 당시 영의정 심환지와 좌의정 이시수·우의정·서용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사도세자만이 아닌 정조의 제사를 위한 분봉상시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화성행궁의 신흥루 왼쪽의 별주(別廚) 옆으로 분봉상시 건물을 조성하였다.

수원의 특별한 기관 분봉상시

분봉상시는 화성 축성 기간인 1794년부터 1796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성역의궤』나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에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1831년 편찬된 『화성지(華城誌)』의 기록에 의하면 분봉상시가 1802년에 화성유수부의 외별고(外別庫)를 개정하면서 최종 완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화성유수부에 속해 있던 국영농장인 여러 곳의 둔전(屯田) 중 융·건릉의 제수를 위하여 분봉상시로 직접 납부하는 토지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금을 바탕으로 분봉상시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분봉상시는 조선시대 다른 도시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수원지역이 특별한 기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수원이라는 도시의 위상이 다름을 또다시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수원 화성행궁 전경(수원시청 제공)

이끼가 덮여 가는 석축(石築)들처럼

홍순영 | 시인

저수지에서 얻는 평화

내가 수원에 첫발을 디딘 것은 2000년 말 경이었다. 그 무렵은 남편 회사가 대전으로 대규모 이동을 한 뒤 불과 몇 년 안 된 시점이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전 직원이 다시 상경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었다. 어렵게나마 살던 집을 정리하는 대로 직원들은 하나둘씩 다시 경기권으로 돌아왔고 집이 안 팔려 애를 먹던 우리 부부도 뒤늦게 수원 정자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밤늦도록 짐을 풀던 수원에서의 첫날 밤, 짐 정리에 지쳐 무심히 올려다본 하늘에는 보름달이 배란다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어수선한 살림과 흔들리는 차에서 녹초가 되었을 화초들을 어루만지던 달빛이 어느 사이엔가 내 마음에도 몰래 들어왔다 갔는지 심란하기만 했던 마음이 점차 차분히 가라앉았다. 새로운 출발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왜소해지기 쉬운 존재다. 부동산 광풍이 일기



울적한 마음을 달래던 저수지의 모습

시작할 무렵이어서 이동시기에 따라 경제적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한동안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의기소침해져 우울해 있었다. 그때 나를 위로해준 것은 인근 저수지였다. 마음이 울적할 때면 저수지 벤치에 앉아 왜가리의 저녁을 지켜보거나 오리들의 날개에 노을이 번지는 것을 한참씩 바라보곤 했다.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저런 상념으로 소란했던 마음은 수위가 낮아지고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원에 정착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나는 자리를 잡느라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수년 후, 화성 성곽과 주변을 탐나는 대로 카메라에 담으며 그제야 수원화성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고 유서 깊은 지동시장이며 영동시장의 풍물에도 눈길이 갔다.

창룡문 사거리를 지날 때면 노을에 흔들리는 억새풀에 가슴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나는 방화수류정을 제일 사랑한다. 용연(龍淵)을 물들이는 버드나무의 연둑빛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다정한 속삭임으로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아이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내려다보던 봄날,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모습으로 언제나 깊은 여운을 남겨주었던 방화수류정은 밤이 되면 조명등이 밝혀진 성곽과 더불어 색다른 운치를 느끼게 했고 요즘은 달빛동행이나 달빛음악회도 열리고 있어 수원화성의 빛이 점차 사람들 사이로 번져나감을 느끼게 된다.



시장에서 곡물 파는 할머니의 모습



방화수류정에 열린 달빛음악회(수원시청 제공)

문화체험의 마당

화성 성곽들이 공간적 배경으로 나를 풍요롭게 했다면 나의 일상에 윤기를 준 것은 연극제나 음악제 같은 문화행사들이다. 그중 하나는 올해부터 <수원연극축제>로 이름이 바뀐 <수원화성국제연극제>인데 1996년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는 화성연극제를 나는 2006년도에서야 처음 관람했다. 소극장에서의 연극 외에 이런 대규모 야외 공연은 처음이어서 장안공원 일대에서 열린 다른 나라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던 그 때의 경험은 지금도 잊히질 않는다.

그동안 틈날 때마다 참석하며 내가 느낀 것은 문화적 체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직장인들이 쉽게 어우러져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공간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가족과 나온 사람, 돛자리와 간단한 간식을 챙겨들고 나온 가족,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손주들과 함께 소풍 나온 듯한 그때의 장안공원 풍경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또 다른 무대였다.

연극제뿐 아니라 화성국제음악제, 화성행궁에서 펼쳐지는 각종 공연 등, 이렇게 나는 일 년 내내 다양하게 펼쳐지는 수원에서의 문화적 체험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위대하면서도 소소한 아름다움에 어느 순간 저절로 스며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수원화성국제연극제(현, 수원연극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수원시청 제공)

복수원 도서관

언젠가 부부싸움을 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나는 도서관으로 도피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부부싸움 하고 도서관에 간 사람은 너뿐일 거란 핀잔을 듣고서야 도서관이 내게 주는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책들 사이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수선했던 감정들도 책장 속 책처럼 가지런히 정돈되는 것 같다.

정호승 시인의 시편 중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시-수선화에게)란 구절을 읽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얹히는 느낌을 받은 적 있는데 그래서일까, 책을 읽고 있으면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를 받는 느낌이 들곤 했다. 위무(慰撫)의 손길로 가득한 곳, 집에서 가까워 더욱 좋은 복수원 도서관은 지금 생각해 보니 내 영혼의 안식처였다. 또한 그곳은 어린이와 학생들뿐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곡절 많은 중년들의 시간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으며 나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장안문을 지나며 우리는 어쩌면 화성 성곽의 석축들처럼 서서히 이끼가 덮여 가는 하나의 돌맹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서먹했던 수원에서의 첫날밤이 어느덧 익숙한 처소가 되었듯, 또 석축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답고 튼튼한 성곽을 이루었듯이 나 또한 수원시민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이-.



복수원지식정보도서관(복수원지식정보도서관 제공)

‘화성행궁복원’ 그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김우영 | e수원뉴스 주간

대부분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나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우선 옛 모습대로 복원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문제려니와 그 자리에 들어서있는 경기도립 수원의료원과 수원경찰서, 신봉초등학교를 옮겨야 하는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은 조선 정조대왕과 불가분의 도시이고 또 화성행궁은 수원화성의 모태여서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긴 했다. 화성행궁 복원은 역사의 뒀안길에서 잊힌 문화유산을 되살린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도 후손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었다. 특히 앞으로 수원이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행궁복원은 필수적인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전기한 바와 같은 난제들이 수두룩했다. 그러나 수원시민들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심에 수원문화원이 있었다. 또 수원문화원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심재덕 원장(후에 민선 1, 2기 수원시장 역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와 흔쾌히 뜻을 같이 한 문화예술인들과 지역원로, 지역을 사랑하는 유지들이 있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불가하다고 여겼던 그 일을 해냈다. 어디 화성행궁복원뿐인가? 수원천 자연형 하천 복원, 서호개방 등 큰일들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1989년 수원화성행궁 복원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수원문화원 50년사」)

원색 ‘화성행궁도’ 발견 복원 도화선

어쨌거나 화성행궁을 복원해야겠다는 뜻은 품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중 향토사학자 고 이승언(본명 이한기)씨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칼라로 된 화성행궁도를 발견했다. 이 사진과 필름을 확보한 수원

문화원을 중심으로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때가 1989년 4월이었다.

이어 6월 17일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발기인회가 수원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발기인은 심재덕 원장을 비롯해 안익승, 이종학, 김동휘, 이승언, 정규호(이상 작고), 최홍규, 이창식, 이흥구, 송철호, 임병호, 김우영 등 각계에서 모인 42명이었다. 젊은이들도 더러 섞여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 원로들로 구성돼있었다.

이날 발기인회에서는 ▲화성행궁터를 문화재 유적지로 지정 ▲수원의료원, 수원경찰서, 경기도여성회관 등을 경기도 소유지로 이전 ▲화성행궁 관련 자료 수집·편찬 ▲화성행궁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한 후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착공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화성행궁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수원화성행궁지 일대 사적 지정 요청

이어 사업의 본격 추진할 화성행궁 복원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는 그해 10월 6일 수원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을 선출하고 '화성행궁복원추진에 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건의문에서 추진위원들은 ▲수원화성행궁지 일대(수원의료원, 수원경찰서, 경기도여성회관)를 사적으로 지정 ▲현재 행궁지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점차적으로 이전 ▲행궁과 조화된 수원천 등 자연경관이 옛 모습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시책수립을 요청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위원장 김동휘, 부위원장 홍의선·안익승·심재덕, 추진본부장 이흥구, 기획부장 임병호, 총무부장 송철호, 사료편찬부장 이승언, 섭외부장 김상용, 홍보부장 김우영 등이었다. 이와 함께 이사 10명, 감사 3명,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81명을 선정했다.

복원추진위원회는 학술발표회 개최 자료발굴, 복원캠페인 등 뜨거운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김동휘 위원장과 이종학 서지학자(독도박물관장), 안익승 경기유네스코회장, 이승언 향토사학자와 심재덕 문화원장 등 임원들은 1991년 12월 29일 임사빈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수원의료원을 신축하면 화성행궁 복원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설득, 수원의료원을 행궁지에 재건축하지 않고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임지사의 결단은 역사에 남았다. 그날 밤 사업추진 주체 중 젊은 축에 속한 필자 등은 송년회가 줄줄이 이어진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쾌거를 자축하며 새벽까지 통음했다. 그리고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마침내 옛 모습 되찾은 수원 화성행궁

1993년 3월 수원시는 화성행궁 복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그해 12월 30일 수원의료원 건물이 철거됐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행궁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세운 의료원은 정자동으로 이전했다. 경찰서도, 여성회관도 이전했다. 이어 유규 및 지표조사를 마치고 1995년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이후 심재덕 원장이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1995년 이후 복원사업은 더 활기를 띠게 됐다. 마침내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완공한 지 200주년이 되는 1996년



1990년 경기도립 수원의료원 정문(조형기 제공)



1997년 9월 12일 봉수당 상량식(『수원문화원 50년사』)

7월 18일 화성행궁 복원공사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열렸다. 화성행궁 복원의 주역인 심재덕 시장은 물론 추진위원들과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 이병희·김인영·남평우 국회의원, 한환 경기도교육감 등 내빈과 시민들이 무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메운 가운데 열린 기공식에서 추진위원회 말석이나마 임원을 맡았던 나는 날씨보다 더 뜨거운 감회를 느꼈다. 무엇보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시대의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뿌듯했다. 아마도 심재덕 시장은 나보다 더한 감회를 느꼈으리라.

마침내 화성행궁은 지난 2002년에 1단계 사업이 추진돼 482칸이 복원됐다. 역사적인 개관식은 2003년 10월 9일 열렸다. 2018년까지 신풍초등학교 토지 매입을 끝낸 뒤 우화관 복원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가 정상대로 이뤄지면 2020년 말 화성행궁 2단계 복원공사가 완료된다. 우화관을 복원하기 위해 신풍초등학교도 이전하기로 했다. 물론 화성행궁 복원에 가장 많이 힘을 쏟은 인물은 고 심재덕 시장이다. 그런데 고압계도 선거에서 정적으로 만났던 김용서 3~4대 시장도 정책을 계승하고 수원화성박물관을 신축하는 등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현 시장도 신풍초등학교 이전 반대 주민들과 갈등을 무릅쓰고 행궁 완전 복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 모두 수원의 복이다.

지금 복원된 화성행궁을 보고 있으면 26년 전 시작된 일들이지만 어제 같다. 심재덕 전 수원시장을 비롯한 복원의 주역들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꿈같은 계획이 실현된 것에 스스로 놀란다.



복원된 수원화성행궁 전경(수원시청 제공)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든 화성성곽길 - 수원 제8색 길

김애자 | 수필가

수원에는 역사와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역에 따라 특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길들이 있다. 모수길·지계길·매실길·여우길·도란길·수원둘레길·효행길 그리고 화성성곽길 등 여덟 개의 길이 그것이다.

그 중 제8색길인 화성성곽길은 화서문에서 행궁에 이르는 총거리 5.1km에 도보로 약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구간이다. 사대문을 모두 아우르며 화성행궁에 이르는 화성성곽길이야말로 수원시민은 물론, 방문하는 그 누구라도 꼭 걸어보아야 할 길이다.



제8색 '화성성곽길' 안내도

역사가 남겨준 귀중한 유산들

이 길이 시작되는 화서문은 여닫는 문 없이 앞쪽을 전돌로 쌓은 반월형 옹성으로 둘러치고, 성문 옆으로는 공심돈을 이 역시 검은 전돌로 쌓아 함께 배치함으로써 전투기능도 보완하고 건축미도 돋보이게 하였다.

장안문으로 가는 성벽의 바깥쪽은 공원인데, 관광객을 태우고 연무대와 서장대 발치를 오가는 용머리의 빨간 화성열차를 볼 수도 있다. 도보가 아니고는 특별히 교통수단이 없는 이 성곽길에서 화성열차를 타보는 체험은 참으로 재미있고 멋스럽다. 비탈진 언덕을 넘고 귀중한 사적과 보물들을 한눈에 감상하면서 동화 같은 차를 타고 동심이 되어 지나치는 시민들과 서로 손을 흔들어주는 맛은 각별하다. 이렇게 성 밖 공원은 광장, 조경시설, 휴게시설 등이 잘 마련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과 고풍스런 성벽이 주는 멋스러움까지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바깥벽은 네모난 육중한 돌로 쌓아 위용을 뽐내는 반면 안쪽은 내탁(內托)의 공법으로 길을 만들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보초를 서는 군영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의 색깔이 흰색에서 검정 파랑 빨강으로 달라짐을 볼 수도 있다.

장안문의 문루를 통과하여 차도를 건너면 그곳 역시 성 밖은 고즈넉하게 사색에 잠겨 걸을 수 있는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첫 시설물인 북동적대 앞에서 화홍문 쪽을 바라보면, 멀리 방화수류정과 각건대가 보이고, 푸른 잔디와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오솔길이 보이는 빼어난 경관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옹성으로 둘러친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수원팔경 중 5경을 한 자리에서

역사에 취해 정경에 취해 걷다보면 문루 아래 일곱 개의 수문으로 흘러내리는 비단결 폭포수가 절창인 수원팔경 중 제7경, 화홍관창(華虹觀漲)의 화홍문에 다다른다. 이 문은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리는 수원천의 다리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남쪽으로는 수원천이 흘러가는 냇가 긴 제방에 버드나무 줄지어 늘어선 제3경 남제장류(南堤長柳)가 보이고, 살짝 비껴 오른쪽으로는 안개에 싸여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제2경 팔달청람(八達晴嵐)의 신비로운 산이 있다. 바로 곁 언덕 위, 화성의 꽃이라는 방화수류정 아래로는 호수를 내려다보며 달이 뜨기를 기다린다는 제8경 용지대월(龍池待月)의 연못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돌아서서 시선을 멀리 북쪽으로 던지면 눈썰미 모습이 제1경으로 꼽히는 수원의 주산(主山), 광교적설(光教積雪)의 광교산까지도 저만치 바라보인다. 가히 수원의 절경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만한 자리가 아닌가!

역사로 가는 길목에서

화성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현재의 용릉 자리로 옮겨 모시기 위해 그 곳의 백성들을 수원으로 이주시키면서 축성한 것이다. 220년 세월의 무게와 역사를 느끼게 하는 성벽의 빛깔이며 빈틈없이 정교하게 채워 쌓은 성돌들의 모양새는 숙연한 마음마저 들게 한다.



북동적대에서 바라본 수원화성의 모습

유연히 벗어나간 성곽길을 따라 걷다보면,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들 또한 선조들이 걸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뒤에 오는 이들에게 물려줄 역사를 지어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방화수류정을 지나 구불구불 정겨운 길을 계속 걸으면 푸른잔디 깔린 드넓은 활터와 수련터, 그리고 소라각이라고도 불리는 동북공심돈이 눈길을 끄는 연무대를 만나게 된다. 다시 길을 건너면 6·25때 완전히 부서지고 사라져 동문은 도망갔다는 말까지 들었던 창룡문에 다다른다.

정치·경제·문화·예술의 총람 화성행궁

시내로 들어와 팔달문시장·지동·못골·영동·미나리광시장 등을 지날 때는 시장골목에서 간단한 먹거리로 요기라도 할 일이다. 자신에게도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यो 상인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좋은 일이 될 터이니.

이제 종점이 멀지 않다. 팔달문을 거쳐 팔달산으로 오르자면 국립교육기관이었던 수원향교가 있고, 조금 더 올라 팔달산 중턱의 산책로로 나서 오른쪽으로 길을 잡으면, 화성을 지키는 신을 모셨던 사당인 성신사 앞에 이르게 된다. 그 곳에서 오솔 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화성성곽길 답사의 대미를 장식할 화성행궁이 오늘의 방문객이 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성 박 공원을 달리는 화성열차



수원팔경 중 제3경 남제장류

1978년, 열두 살 꼬마 소년의 등굣길

이기봉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화성시 비봉면 쌍학2리 아꿈말에서

이른 아침, 키 128cm의 열두 살 꼬마 소년이 아꿈말의 시골 집을 나와 장순재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진 십여 분의 마을길을 종종종 걸어간다. 갑자기 저 멀리서 싸리재고개를 넘어오는 시외 버스의 모습이 보이고, 화들짝 놀란 꼬마 소년은 달리기 시작한다.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버스에 오른 꼬마 소년은 빈자리를 마다하고 굳이 운전수 아저씨 바로 옆의 딱딱한 엔진 덮개 위에 쪼그리고 앉는다. 폭신함이 전혀 없기에 더덜더덜 다다다닥 비포장 찾길 위의 바퀴 느낌이 토실토실 엉덩이에 그대로 전해진다.

차에 오른 후 10여 분을 달리자 버스 안은 다리미질 뽀뽀한 교복의 중학생 형과 누나로 발 디딜 틈이 없고, 문을 닫지 못한 채 대롱대롱 매달린 안내양 누나가 사이드 거울 속에 비친다. 운전수 아저씨가 지그재그로 차를 몰아 승객을 안쪽으로 밀어 넣자 그제야 안내양 누나는 겨우 문을 닫는다.

아스팔트길의 오목천동, 고색동

온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들 것 같던 비포장 찾길의 소음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엔진 덮개 위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열두 살 꼬마 소년은 눈을 뜨지 않고도 수원시 경계의 오목내고개를 넘어 아스팔트 포장길로 들어섰음을 이내 알아차린다. 오목동에서 중학생들이 대거 내리자 버스 안은 조금 숨 돌릴 만해진다.

다시 출발한 시외버스는 짧은 급경사의 길을 살살 내려간다. 추운 겨울 눈이라도 내리면 하굣길의 시외버스가 웅웅 헛바퀴를 돌며 끽끽거리고 오르던 작은 비탈길이다. 평지 길에 접어들고 오목



가로수가 이어진 고색동 아스팔트 길
(1978년 12월, 조형기 제공)

천교를 건너자 또 다시 1km의 긴 비포장 길을 더덜더덜 다다다닥 소음을 내며 곧게 내달린다. 꽤나 장관이다. 길 양쪽으로 쪽쪽 뻗은 미루나무가 저 멀리 한 점에 모이는 직선의 시각적 효과는 꼬마 소년의 뇌리에 짙은 잔상으로 남고, 네모반듯한 널찍한 눈들이 미루나무 사이사이로 빠르게 스친다.

시끄럽던 시외버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조용해진다. 아스팔트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색동이다. 고색국민학교 정류장에서 서너 명의 중·고등학생이 더 타자, 시외버스는 또 다시 대롱대롱 매달린 안내양 누나를 밀어 넣고자 지그재그로 달린다. 겨우 문이 닫히면 수백 년 느티나무 한 그루 멋지게 서 있는 고색동 끝에서 살짝 꺾어 넓은 들판 사이 직선의 500m 가로수 길을 지나 평동교를 건넌다.



수원역을 지나 세류국민학교로

꼬마 소년의 눈에 드디어 도시가 시작된다. 평동 길 양쪽으로 집들이 빼곡하고 붉은 벽돌의 선경합섬이 우뚝하다. 두 개의 버스정류장이 나오지만 만원(滿員) 시외버스는 서지 않고 지나간다. 시가지 끝 실개천의 작은 다리를 돌아 건너자 곧바로 경부선의 철길이다. 따릉따릉 신호음이 들리고 엄청난 굉음의 기차가 버스도 날릴 듯 바람을 일으키며 휘이익 지나간다. 꼬마 소년이 신기한 듯 기차의 뒤편무늬를 바라보는 사이 시외버스가 조심스레 철길을 건너고, 시골 출신 꼬마 소년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풍경이 펼쳐진다.

수원역 앞 6차선 도로다. 세상에 이렇게 넓은 길도 있단 말인가. 역 앞이라 차가 붐비는 곳이지만 길이 넓어 오히려 한산하게 느껴진다. 버스에서 내린 꼬마 소년은 그 길을 볼 때마다 동화 속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고, 사람들이 육중한 하늘다리 위를 오르내리며 지나가는 풍경은 우리나라 같지가 않다. 잠깐 멍한 눈으로 바라보던 꼬마 소년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학교 가는 셋길로 발길을 옮긴다.

셋길이라지만 2차선 포장도로고, 길 양쪽으로는 인도도 있다. 3번 시내버스가 다니는 꽤나 먼 십여 분 길이지만 꼬마 소년은 앞만 보고 걸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재잘재잘 친구들로 북적댄다. 드디어 '세류국민학교' 이름이 선명한 교문에 들어서면 수십 년 느티나무 우거진 높다란 계단식 축대, 축구 골대 덩그러니 널따란 운동장, 삼면 둘러친 웅장한 4층 교실의 건물들이 꼬마 소년을 차례대로 맞이한다.



1970년대 수원역의 모습(『수원시사』1, p.530)



1970년대 수원역으로 가는 6차선 도로(『수원시사』19, p.220, 수원시청 소장)

40년 세월과 함께 희미해진 등갯길

1978년 가을 어느 날, 키가 무척이나 작았던 꼬마 소년 필자의 등갯길을 회상해 보았다. 그해 5학년 2학기에 화성군의 비봉국민학교에서 수원시의 세류국민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필자의 긴 버스 통학이 시작되었고, 연무중학교를 거쳐 수성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6년 반 동안 이어졌다. 대학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1985년 1월, 누나와 함께 자취를 하게 되면서 긴 버스 통학은 끝이 났다.

40년 가까이 흐른 2015년 가을, 그때의 등갯길을 다시 가보면 참 많이도 변했다. 꽤나 높아 보였던 오목내고개는 지하도를 만들어 고개 아닌 고개가 되었고, 오목천교 너머의 2차선 비포장 길은 언제나 차들로 붐비는 6차선의 널찍한 포장길로 바뀌었다. 외곽에 새로운 간선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오목동과 평동의 찾길은 추억의 좁은 옛길로 변했고, 미루나무 스쳐지나가던 네모반듯한 넓은 들판은 흙으로 돌아져 새로운 도시 공간이 시끌벅적 들어서고 있다. 무엇보다 변해버린 것은 거대한 성벽 같은 AK플라자가 들어선 수원역이다.

1978년 가을 어느 날 꼬마 소년이 보았던 풍경 한 점 찾아볼 수 없으니, 상전벽해(桑田碧海)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평동에 있던 선경합섬(『수원시사』6, p.300, 2014)

오월에서 유월 그리고 칠월까지

이병덕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가뭄과 함께 시작된 메르스

을미년(乙未年)은 겨울부터 눈이 내리지 않는다더니 기어코 봄 내내 그리고 하지·소서·대서가 지나도록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다. 40년 만의 대가뭄이라는 보도가 연이어졌고, 각 지방의 저수지마다 거북등같이 갈라진 바닷을 드러내며 수몰됐던 마을의 길들과 집터까지 드러났다. 이처럼 갈증 나는 한해도 없었을 것이다.

5월 22일 찔레꽃이 피고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평택에 입원 중이던 서울시 거주 환자가 수원시 성빈센트병원을 거쳐 가면서 가뭄과 함께 뜨거운 염병(染病)의 계절이 시작됐다. 수원시의 메르스 종결시점인 7월 22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두 달간 흥역을 앓은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장안구보건소는 선임보건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수원시 메르스 대책본부가 차려졌고, 나는 이 뜨거운 현장의 중심에 서 있게 됐다. 최전선 현장 관리자로서 그간 보고 느낀 모습 그대로를 전하고자 한다.

5월 22일 이후, 메르스 확진 환자가 성빈센트병원을 경유한 사실에 시민들이 크게 동요했고, 이는 인근 평택시의 발병 확산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



교실을 방역하는 모습



메르스 방지를 위해 매일 이뤄진 대중교통 소독

시를 경유한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보건소 전화기는 불이나기 시작했고 이를 직원 4명이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은 커졌고 급기야 수원시 비상대책본부를 장안구보건소에 마련해 보건소뿐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합동운영체계가 갖춰졌다.

지방에서 자구책을 만들다

사실 보건소의 감염병 담당자는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 업무를 맡고 있어 초기 대응부터 마무리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정부의 정보 미공개 방침에 따른 시민들의 거친 항의와 문의 전화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고 전 직원이 응대해도 사람들의 불안감은 식을 줄 몰랐다.

이에 편승하여 도처에서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우리 직원들은 담당업무와 더불어 사실 해명과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는 홍보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자가 늘어감에 따라 자택격리대상자 관리가 주 업무가 됐다.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는 검체 이송과 검체 채취 그리고 환자 이송으로 숨 가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전화 민원은 날로 늘어 각 보건소는 물론 비상대책상황실에 설치된 임시 전화 30여 대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직원들은 끼니를 거르거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허다했고, 새벽 2~3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갔다 오는 것이 번거로워 보건소 간이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심지어 수원시 보건소 직원 중에는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일도 있었고, 어렵게 임신한 아기를 유산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늘 수면부족과 상황의 악화, 사면에서 옥죄이는 업무 스트레스, 상급기관의 점검과 간섭, 언론과 정보기관의 시달림 등으로 몸과 마음이 점점 탈진되어가기 시작했고 이것은 나뿐 아니라 보건소 전 직원들의 공통 피로현상이었다.

이번 사태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시기적절한 대응과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서부터 업무 지시, 검사 문제, 역학조사관과의 관계 모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구책을 찾아 나섰다. 우리 스스로 방책을 세워 시민들을 지켜내야 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정확한 정보 공유체널이 없다는 것이

었다. 따라서 메르스 정보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내에 전용 창을 만들고, SNS를 통해 수원시의 모든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차츰 시민들의 불안감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다양한 선제 대응 방역활동을 실시해 나갔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정보 공개라든지 임시진료소, 검체 검사, 방역 활동, 방역물품의 지원, 동요시민들에 대한 간담회, 수원의료원 앞길을 희망의 거리로 조성하는 등 수많은 메르스 선제 대응을 실시하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데 발 빠르게 대처했다.

정조에게서 백성에 대한 사랑을 배우다

지금부터 227년 전 1788년 정조 12년의 과거로 돌아가 당시는 감염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임금의 일기인 일성록(日省錄)은 1760년(영조) 1월부터 정조대왕을 거쳐 1910년(순종)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일성록에 정조 12년 5월 중순부터 도성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뒤 9월 10일까지 병민의 치료와 관리 현황을 보고한 내용들이 전후의 과정을 포함하여 소상하게 실려 있다.



수원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 회의

또한 다른 왕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인 보고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역병은 정조 12년 9월 10일로 종료되었다.

당시 발생한 역병은 원인과 처방을 찾아내기 어려웠고 해민서나 활인서의 기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격리[出募(출막)] 치료 뿐이었지만, 정조처럼 국가의 행정 기능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수습해 나간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에 수원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메르스 백서를 『일성록』이라 하고 그간 우리가 겪었던 각종 시행착오와 초기의 혼란, 행정 실수, 기관 간 불협화음 등을 기록해 재발되지 말아야 할 실수와 실책들을 반면교사의 자료로서 남기고자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여전사들을 위하여

끝으로 늘 어김없이 오후 7시 전후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퇴근 발목을 잡아 놓던 마법같은 시간들, 비상대책 상황실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던 “오늘은 무사히”라는 문구가 원망스럽게 느껴졌던 나날들, 그리고 밤 11시, 12시가 지나면 집에 돌아와야 하는 어린자녀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피로에 지친 보건소 여전사들의 눈망울들이 앞으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그이들에게 이제 마른 꽃이 된 찔레꽃 한 다발을 함께 보낸다.



수원의료원 희망의 거리에 희망 리본을 다는 시민들

도시농부, 당수동 다섯 평 텃밭이야기

윤소라 |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

토요일엔 당수동 시민농장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차를 몰고 당수동 시민농장의 도시농부학교로 향한다. 이제는 토요일에 어떠한 약속도 잡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도시농부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두 시간 동안은 이론 강의를 듣고 나머지 한 시간은 실습을 한다. 손바닥만한 텃밭을 디자인하고 씨앗과 모종을 구입하는 일들이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텃밭을 꾸미고 밭그림을 그리는 일에 '디자인'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에는 다소 민망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실현해 주는 재미난 '텃밭디자인놀이'에 빠져 들고 있다.

다섯 평 남짓한 작은 텃밭이지만 빠른 순환을 해야 하기에 늘 부지런을 떤다. 매월 심는 작물을 구분해야하고 수확 후 빈 고랑에는 밭거름을 주고, 또 다른 제철



당수동 시민농장

모종을 심고 파종한다. 수미감자를 캔 자리에는 여름 시금치를 심었고, 콜라비를 수확한 자리에는 알타리무와 얼갈이배추를 키운다.

초보 도시농부는 배운 대로 실천을 한다. 수원농업기술센터에 받아 온 이엠(유용미생물)을 밭에 부지런히 물을 주고, 고추나 토마토는 난각칼슘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메리골드와 고추를 사이짓기를 하면 고추가 병충해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의를 듣고서 고추 모종 하나에 메리골드 하나씩, 사이에 섞어 심었다. 그 결과, 콜라비는 어른 주먹만하게 열렸고 고추는 줄기가 휘어지도록 주렁주렁 달리고 병 없이 아주 튼튼히 잘 자라고 있다. 초록색의 텃밭은 눈이 즐거운 아름다운 꽃밭으로 멋지게 바뀌었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토마토 일자 몸매로 키우기'에 몰입을 했다. 흑토마토 모종과 노랑방울토마토 모종 열두 포기를 구입하고 지주대를 설치하고 열심히 결순을 따주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결순이 아닌 생장점을 죄다 잘라 버려서 어느 순간 토마토가 더는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옆 밭의 대충 키우는 토마토는 결순을 따주지 않아도 노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얼음처럼 굳은 내 토마토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좌절도 잠깐 뿐, 며칠 후에 자연의 놀라운 섭리는 생장이 멈춘 토마토 모종 가지 옆에서 굳은 땅을 뚫고서 새로운 싹이 났다. 지금은 어느 밭보다도 풍성한 토마토 군락을 이루며 매일 달콤한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다행히 무럭무럭 자라준 토마토

가뭄, 맨손으로 벌레잡기

아! 징그러운 고구마 농사. 많지도 않은 단 두 고랑의 고구마 농사! 6월 첫 날, 농부학교 동료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서 고구마 순을 밭에 심게 되었다. 수원에는 6월 한 달 동안에 비다운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유례없는 가뭄을 기록한 올해 6월, 나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고구마 순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물을 주었는데, 우리집 영통에서 당수동까지 매일 물을 주러 다녔다. 당수동 시민농장은 공동의 공간이므로 밭에 물을 줄 때 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물뿌리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뿌리개에 물을 받아서 100짜리 물통 두 개를 양 손에 거머쥐고서 저수조탱크와 밭 사이를 수십 번을 오가며 반복해서 물을 줘야만 겨우 땅이 적셔진다.

이렇게 물주기를 끝내고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느덧 밤 11시이다. 허리며 팔과 다리 안 쉬는 곳이 없고, 결국 밤새 끄끙 앓고 만다. 다음 날이 되면 가뭄에 애태우는 작물들을 떠올리며 또 물뿌리개를 신고서 집을 나선다.

탐스런 가지가 주렁주렁 열리기까지 매일 이십팔점무당벌레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인다. 빨간색 바탕의 일곱 개의 점을 가진 칠성무당벌레와는 달리, 연한 주황빛의 이십팔점무당벌레는 가지의 달달한 과육 껍질을 인정사정없이 먹어 치운다. 10만평 텃밭에 살고 있는 해충인 이 녀석을 하루에 스무 마리 정도 눈이 보이는 대로 잡아서 없앤다. 처음에는 벌레를 보고 기겁을 했으나 지금은 맨손으로도 벌레잡이를 한다.



이십팔점무당벌레들과의 사투 끝에 일군 가지밭

밤을 밝히는 한여름 밤의 도시농부들

눌러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벗어 들고서 방울토마토와 가지와 호박을 담는다. 저녁 반찬은 가지양념구이와 새우젓 한 숟가락 듬뿍 넣은 호박찌개이다. 가끔은 밤 9시가 넘은 늦은 밤에 텃밭에 도착할 때도 있다. 여기저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핸드폰의 불빛이 보인다. 한여름 밤을 같이 보내는 반가운 도시농부들이다. 당수동 시민농장 10만 평이 마치 반딧불이 불빛처럼 곱게 반짝인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푸근한 위안을 주는 반가운 불빛들이다.

파프리카가 초록빛에서 진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익어간다. 8월은 도시농부에게는 정말 바쁘고 힘든 달이다. 퇴약별 아래에서 퇴비를 넣어서 밭을 뒤집고, 배추와 무를 심을 고랑을 만들어야 한다. 처서에는 김장무를 심어야 하고, 8월말이 되면 김장 배추 모종을 심어야 한다. 얼마 전에 씨앗을 뿌려 둔 당근이 장맛비에 예쁘게 싹을 틔웠다.

이 작은 당수동 시민농장의 텃밭은 2015년 한 해 동안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고 부지런한 도시농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나는 오늘도 곧 다가올 가을의 풍요로움을 꿈꾸며, 수원에서 도시농부로 살아가기를 연습 중이다.



메리골드와 사이짓기를 해 병해없이 주렁주렁 열린 고추



밀짚모자에 수확한 농장의 채소들

수원화성 달빛동행

오수정 | 수원문화재단 화성기획팀 대리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환한 달빛과 조명으로 아름답게 불 밝힌 수원화성의 성곽길을 따라 화성열차가 경적 소리를 내며 달린다. 낮에만 볼 수 있는 열차가 밤에 운행되는 것을 보고 산책 나온 시민들도 신기한 듯 손을 흔들며 환한 인사를 건넨다. 지나가던 차량들도 멈춰서서 반가움의 경적을 울린다.

밝은 미소로 화답하는 탑승객들을 가득 실고 화성열차는 달빛의 안내를 받으며 앞으로 나간다. 용머리에 임금님이 타던 가마의 모습을 한 화성열차의 생김새 때문일까 열차가 가는 모습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타임머신 같은 느낌마저 든다.

아주 특별한 시간여행 <수원화성 달빛동행>

열차가 멈춰선 곳은 장안문 앞. 100여 명의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건축물의 위용에 압도당한 듯 감탄사를 쏟아내며 열차에서 내린다. 조명을 받아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장안문을 올려다보며 순간을 놓칠새라 연신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은 바로 수원화성 야간 관람 프로그램 달빛동행의 참가자들이다.

고궁의 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요즘 수원화성 달빛동행의 참가자들도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고 참가일을 손꼽아 기다리다 수원을 찾아왔다. 예매 경쟁을 통해 참가하게 된 만큼 한순간이라도 놓칠새라 달빛지기(문화관광해설사)를 가까이 따라다니며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달빛지기의 이야기를 통해 장안문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가자들에게 전해지고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



화성행궁을 관람하는 <수원화성 달빛동행> 참가자들

로만 여겼던 수원화성이 곁에 살아 숨 쉬는 역사의 산 기록물로 다가간다. 달빛이 이끄는 길을 따라 장안문에 올라서서 멀리 굽이굽이 이어진 성곽길과 누각의 처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야경을 내려다보니 마치 220여 년 전 수원화성이 지어진 그때로 시간이 멈춘 듯하다.

장안문 앞쪽으로는 바쁘게 오고가는 차량들의 불빛,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옛 건물과 묘한 조화를 이루며 과거와 현대를 잇고 있다. 수원화성은 과거와 현대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달빛지기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 진다. 도심 사이로 우뚝 솟아 있는 성곽길을 따라 현대와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원화성 달빛동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 아닐까.

달빛동행, 수원화성 달빛 야경의 진수를 경험하다

수원화성 달빛동행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야간 관람 프로그램이다. 달빛지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해설과 함께하며 화성 열차를 타고 수원화성 성곽길 달빛 야경을 즐기고 수원의 색이 담긴 다과와 함께 조선 시대 행궁의 건축의 백미, 화성행궁에서 펼쳐지는 전통연희를 감상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행궁 야경

화성행궁을 시작으로 미로한정 - 화성열차(팔달산→장안문)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용연 - 수원천 - 행궁광장으로 이어지는 3.84km의 달빛동행의 관람 동선은 아름다운 수원화성 달빛 야경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특히 관람 동선 중 용연에서 바라본 월출은 수원팔경 중 하나인 용지대월(龍池待月)로서 수원화성 축성 당시 화홍문 인근에 조성한 용연에서 바라본 달구경은 인공과 자연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도심 속 궁궐에서 경험하는 힐링타임

화성행궁에서 시작된 수원화성 달빛동행의 여정은 장안문, 화홍문, 방화수류정으로 이어지며 참가자들에게 달빛 야경의 진수를 선사한 후 다시 화성행궁으로 이어진다. 달빛을 받아 고즈넉한 자태를 뽐내는 화성행궁 입구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도령들이 서서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행궁 안으로 들어서자 한지로 곱게 포장된 다과와 제호탕(궁중에서 즐기던 갈증 해소 음료)이 전해지고 공연이 펼쳐지는 유여택(임금이 행차할 때 잠시 머무르며 집무를 하던 공간) 너머로 대금의 깊은 울림이 전해진다.



공연을 관람하며 더운 날씨에 수원화성 축성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정조대왕이 하사한 음료라는 제호탕을 한입 들이키니 더위가 싹 가시는 듯한 기분이 든다. 유여택을 활용한 무대가 궁중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공연에 운치를 더한다. 화성행궁이 무대가 되어 아름다운 우리의 음악과 무용이 이어지자 관객들의 감동어린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

네 가지의 공연을 선보이는 달빛향연을 마지막으로 달빛동행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다. “달빛동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건네받는 사람들의 표정에 가득한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수원에 꼭 다시 와야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아쉬움을 남기며 돌아가는 참가자들에게 수원화성 달빛동행이 수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음이 전해진다. 수원화성 달빛동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수원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경험해보기를 소망해 본다.

수원화성 달빛동행은 5~7월 상반기와 8~10월 하반기로 나뉘어 20회에 동안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9, 10월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매회 100명의 관람객을 수원화성으로 초대한다. 하반기 관람(8월~10월)은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8월 3일부터 관람권 예매를 진행한다.

관람권은 인당 2만원으로 인터파크 티켓예매(<http://ticket.interpark.com>) 및 수원문화재단(<http://www.swcf.or.kr>)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에게는 20%의 '동행할인'을 제공한다.

* 문의 : 수원문화재단 화성기획팀(031-290-3612)



유여택에서 열리는 달빛동행 공연

잇고! 묶고! 알리자! 인계 올레?!

김준기 | 도서출판 '마중물' 대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내일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겠다.' -인계동 주민 일동-

상전벽해, 도시의 빛과 그림자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계동은 도시라고 하기에, 그렇다고 농촌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지역이었다. 그저 그런 계곡지같은 집들이 웅기종기 밀집해 있는



도시의 빛과 그림자, 인계동의 고층 아파트 바로 뒤에 자리 잡은 구도심 주택가의 모습

도시외곽의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 인계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장다리천이 그 경계선이였다. 지금은 장다리길이라고 부르는 인계초등학교 앞 복개천길은 원래 냇물이 흐르던 곳이었다. 거기까지가 주택가였다. 그 너머는 곧바로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었다. 어쩌다 농가가 한두 채 있고 지금 KBS 수원센터 자리도 솔밭 한 가운데 송신탑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그곳에 수원 행정의 심장인 시청이 자리잡았고 주변으로 대형 백화점과 각종 증권회사와 은행이 들어섰다.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수원시 야외음악당이 세워졌고 나혜석거리가 조성되었다. 불쌍사나운 철탑만 있던 곳이 우리나라 드라마의 메카인 KBS드라마센터로 바뀌었고 그 맞은편에는 이른바 인계동 로데오거리라 불리는 수원 최대 유흥가가 형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주택가였던 구도심 지역의 슬럼화는 피할 수 없었다. 인계동의 지형은 평지는 거의 없고 유난히 가파른 언덕길이 많다.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지역은 사오십 년 전의 모습에서 별로 변한 게 없었다. 리어카 한 대가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비탈길 막다른 골목집에는 거기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거의 떠났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들의 연로한 부모님이거나, 일자리를 찾아 온 중국동포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바뀌었다. 더 심한 경우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로 방치되는 주택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은하철도 999에 올라 탄 스머프 가족

수원시의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수원 마을 만들기 르네상스> 사업이다. 서구의 르네상스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 문화 예술을 부흥시킨 변혁이었다면 수원의 르네상스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 속에서 단절된 이웃의 벽을 허물어 슬럼화를 막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아름다운 마을로 바꾸려는 의지를 실현시키려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 중 한곳이 인계동 올레길이다.

인계동에는 화성역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여주·이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고 미질의 쌀을 수탈하여 일본으로 실어내기 위해 놓았다는 철로가 수여선이다. 1972년까지만 해도 협궤열차가 실제로 다니던 철길이다. 수원역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 역이 화성역이었다. 그 철로를 복원한다는 일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와 추억은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 가능성을 인계동 올레길

에서 찾는다. '화성역'이라는 뜻을 붙이고 옛날의 철길 차단기 모양을 복원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화성역과 수여선 철로에 얽힌 추억들을 찍었을 사진과 엉뚱하게 은하철도 999에 올라 탄 스머프 가족의 모습이 정겨운 골목길이다.



인계동 올레길에서 만나는 벽화. 화성역이 있던 자리라는 의미와의 연결이 절묘하다

최고의 인문학 거리를 꿈꾸는 세계에서서 제일 작은 미니 도서관

인계동 곳곳에 주민들의 노력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에는 수원시 마을 만들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인계동 구도심의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이른바 달동네 특유의 쓰레기가 방치된 모습이나 악취를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다. 문제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홍보가 덜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이어가는 사업이 <잇고! 뭉고! 알리자! 인계 올레?!> 사업이다.

이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장다리길이다. 이 길은 인계동을 신도시와 구도시로 나누는 경계선이다.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작지만 큰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작은 도서관이 세 곳이나 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공중전화 이용자가 줄었고, 거리의 흉물로 전락한 공중전화 부스를 도서관으로 바꾼 것이다. 그 발상이야말로 기가 막히게 절묘하다. 바로 옆에 벤치까지 있어 책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인계동은 이 길을 수원 최고의 인문학 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꿈꾸고 또 진행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일이 관이나 민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내가 나고 자란 인계동 골목을 다시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노정에서 어느 집 담벼락에 붙은 시 한 편을 만났다. 「동네 이야기」라는 제목의 시였다. 어라. 그런데 시인의 이름이 이준재였다. 취재를 위해 만났던 인계동 마을 만들기 총괄 팀장의 이름과 같다. 제발 동명이인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렇게 행정단체와 마을 주민의 힘이 합하여져, 화성역이 있던 자리에서 뒷집을 쥐고 천천히 인계동 올레길을 올라 인문학이 활짝 핀 장다리길을 건너 KBS드라마센터와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제1야외음악당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어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인계동의 올레 작은 도서관

〈골목난장〉,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박종찬 | 삼일상업고등학교 수석교사

마을 속으로 들어간 학생들

마을공동체와 지역학교가 함께하는 문화행사 <들썩들썩 골목난장>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따뜻하게 치러졌다. 지난 가정의 달 5월 21일 수원시 행궁동 벽화골목 일대에서 삼일상업고등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행궁동 어르신들이 모여 한바탕 난장을 펼쳤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골목난장은 삼일상고 학생들로 꾸러진 댄스동아리 '에이블'을 비롯해 치어리더 동아리 '아에스토스' 공연, 학부모 댄스 동아리 '씨니', 기독학생 동아리의 '위십' 이유진 학생의 트로트 공연, 학부모 시조창, 김순애 선생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꾸몄고,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풍물단 '신평 풍물단'도 참여해 축제의 흥을 돋았다. 특히, 금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그동안 준비한 민요와 시조창, 교사 연합 하모니카연주단까지 어우러진 그야말로 골목이 호사한 자리였다.



마을 어르신들의 공연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즐기는 골목 축제의 모습

〈들씩들씩 골목난장〉은 지난 2008년 삼일상고와 행궁동 마을 커뮤니티 ‘대안 공간 눈’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행궁동 일대에서 늘 마주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마을 골목에서 특별한 축제를 기획해 음식을 나누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펼쳐 보자는 작은 꿈이 계기가 됐다.

처음엔 삼일상고 학생들만의 공연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지만, 해가 갈수록 학부모, 마을 어르신, 마을 예술인, 그리고 공연 재능기부 공연까지 행궁동의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삼일상고 학생 뿐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과 행궁동 마을주민들까지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행궁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가들까지 참여하며 축제는 더욱 풍성한 잔치로 변했다. 함께 나누는 음식도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까지 마련 해주어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 주었다.

골목 축제를 통해 만드는 교육공동체와 밝아져 가는 골목길

예전 행궁동 마을 골목은 어두운 이미지였다. 매년 〈들씩들씩 골목난장〉이 마을 골목에서 열리면서 마을주민들과 학생들 간의 이해를 높이고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골목이 밝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 5월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로부터 효를 배우는 중요한 인성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광장 중심의 대규모 공연에서 마을 골목에서의 소소한 축제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의 두레정신을 이을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삼일상고와 삼일공고 그리고 삼일중학교의 전신인 삼일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1874~1930)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무대까지 열려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선배들로부터 대를 이어온 뜻깊은 축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 있어 인성과 진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행궁동 벽화마을 골목에서는 소소한 들씩들씩 골목난장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문화원이 할 일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민속예술단 2015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 <바투>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민속예술단의 2015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 <바투>가 고색동 중보들 공원과 수원 광고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열린다.

- | | |
|--------------------------|-------------------------|
| ■ 일 시 : 8월 22일(금) 19:30~ | ■ 일 시 : 9월 5일(토) 19:30~ |
| ■ 장 소 : 수원 고색동 중보들 공원 | ■ 장 소 : 수원 광고호수공원 마당극장 |

2015 수원문화원 기획공연 <오페라 & 갈라콘서트>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원문화원 기획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8월 28일(금) 19:30, 제2야외음악당(만석공원 내)에서 열린다. 소프라노 이영숙과 함께 많은 성악가들의 노래로 꾸며지는 이번 갈라콘서트를 통해 유명 오페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전석무료

제9회 수원시평생학습축제

2015년 9월 11(금)~12(토), 수원화성행궁 광장에서 이틀간 열리는 수원시평생학습 축제에 우리문화원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쉽게 배우는 종이접기 체험>으로 축제에 참가한다.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9월 18일(금)~ 19일(토) 경기도 오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제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열린다. 수원문화원은 수원시 대표로 전통 농악인 '수원두레'로 예술제에 참가한다.

수원생활문화센터 개관식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5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수원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이 9월 23일(수) 14시, 수원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 축성 체험>

정조대왕의 효심과 수원화성 축성의 의미를 기리는 전국 최대의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가 10월 8일(목)~11일(일) 4일간 수원화성행궁 광장,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우리문화원은 짚신을 신고 수원화성을 걷는 체험과 수원화성 축성 체험을 진행한다.

행 사	일 시	장 소
수원화성 축성 체험	10/8(목) ~ 11일(일)	수원화성행궁
짚신신고 수원화성에서 놀~자	10월 11일(일)	수원화성행궁 광장

제4회 대한민국 정조대왕 서화대전

문예군주 정조대왕의 학덕과 정신을 고취하고 효사상을 계승하는 제4회 대한민국 정조대왕 서화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서화대전은 한글, 한문, 사군자, 문인화 부문을 공모하며, 9월 7일(월)~9월9일(수) 3일간 접수한다. 공모요강 및 출품원서는 수원문화원 홈페이지(www.suwonsarang.com)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에 수원문화원 사무국으로 원서와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수상작은 10월 10일(토)~14일(수) 5일간 경기도문화의전당 빛나는 갤러리와 소담한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시에 참가하게 된다.

열정을 연주하고 청춘을 노래하라! 2015 직밴리그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2015 직밴리그를 10월 25일(일), 18시에 개최한다.

2015 수원문화단체 워크숍

2015 수원문화단체 워크숍이 10월 28일(수)~ 29일(목) 경상남도 산청에서 열린다. 수원문화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1박 2일간 지역 유적지를 탐방하며 수원의 문화단체들의 역량을 기르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5 인문학 기획탐방

2015년 인문학탐방의 연계사업인 <인문학 기획탐방>을 진행한다. 11월 20일(금)~22일(일) 2박 3일간 전라남도 진도·해남·강진·완도 지역의 탐방을 통해 2015 인문학탐방을 마무리한다.

1 바로 잡습니다

· 2015년 여름호 44쪽, 「전국 최초의 문화유산해설사, 윤규섭」에서 제목과 중간제목의 '전국 최초의 문화유산해설사'를 '문화유산해설사'로 바로잡습니다.

수강생 모집 안내

수원문화원 문화학교

NO	문화학교명	요일	강의시간	지도
1	경기민요반	화·금	11:00 ~ 12:30	김옥자
2	규방공예반	화	10:00 ~ 12:00	나정희
3	노래부르기반	목	10:00 ~ 12:00	유진표
4	도자기공예반	수	14:00 ~ 17:00	박준수
5	백간공예반	월	13:00 ~ 15:00	이수진
6	모듬북반(초급)	화·목	09:00 ~ 11:00	김옥기
7	모듬북반(중급)	화·목	(화)12:40~14:40 (목)11:00~12:40	김옥기
8	사물놀이반	월·금	15:00 ~ 17:00	김현수
9	서예반	수	10:00 ~ 12:00	안효영
10	서예반(장안구 분원)	목	10:00 ~ 12:00	김진숙
11	전통의상(한복) 만들기반	월	14:00 ~ 17:00	이성섭
12	태평소반	화	19:00 ~ 21:00	이한영
13	하모니카반	수	13:30 ~ 15:30	김혜숙
14	한국무용반	월	10:00 ~ 12:00	여지영

2015 어르신 문화활동 양성가

NO	문화학교명	요일	강의시간	지도
1	우리는 수원문화 사진지킴이 1기	수	10:00 ~ 13:00	설병훈
2	우리는 수원문화 사진지킴이 2기	수	14:00 ~ 17:00	조형기

동 아 리

NO	동아리명	요일	모임시간
1	문미회(유화)	목	10:00~
2	비르투오조	화	10:00~12:00
3	수원·화성소리사랑	목	13:00~15:00
4	난장(전통창작타악)	화	15:00~17:00
5	깃(한국무용)	수	10:00~12:00
6	애재(태평소)	수	19:00~21:00
7	한땀두땀 우리한복	금	14:00~17:00
8	소리뜰(하모니카)	목	13:00~15:00
9	We 앙상블(오카리나)	월	10:00~12:00
10	사계절 봉사회	둘레,넷째 목	10:00~

수원민속예술단

요일	시간
월	13:00~15:00

수원문화원 산악회

요일	시간
둘째주 토	07:00~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 출발)

- ▶ 모집방법 : 수시 / 방문 접수
- ▶ 수 강 료 : 분기별 30,000원
- 회 비 : 분기별 15,000원

▶ 문의전화 : 수원문화원 031) 244-2161~3

수원문화원 가족마당 <http://cafe.daum.net/suwon110>

FIND YOUR SIGNATURE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 2,820만 화소 BSI CMOS 이미지 센서 • 초고속 연사(초당 15fps)와 초고속 AF(0.055초) • 고화질 4K/UHD 동영상 촬영 • 견고한 마그네슘 합금 바디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o)를 참조하세요.

삼성전자 

평생 함께하는 은행 IBK기업은행이 국민 모두의 희망을 지켜줍니다



IBK기업은행의 새로운 얼굴, '희망로봇-기은센'을 소개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평생파트너로, 평생 당신곁에서 소중한 희망을 이뤄줄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